



2018년 학자금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쟁취!

총단결! 총력투쟁! 투쟁 속보

9대 요구 쟁취! '18투쟁 승리!

제 3 호

2018년 5월 18일(금)

발행: KT노동조합

“더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실무교섭 전면중단', 사측의 단체교섭 요구안 수용거부에 분개한다!



2018년 단체교섭을 본교섭과 실무교섭 모두 12차례 개최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위기다. 어렵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회사는 투자실패로 4년간 무려 2,6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다. 경영진이 경영만 제대로 했어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정부와 경쟁시장 등 외부의 경영환경 탓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외이사를 비롯한 회장과 경영진들은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오히려 임금과 복지가 정체하고, 그 동안 빼앗겨온 현장의 조합원들이 어떻게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더이상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15일부터 전개한 제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은 '18 단체교섭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엄중 경고한대로 다음주까지 사측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합간부 총력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 종료, 다음주 총력투쟁 전개

지난 16일 제3차 본교섭을 개최했지만 사측은 일시금 100만원 지급과 인사보수제도개선 안건에서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실질적 임금인상과 대학학자금 부활 및 임금피크제 재협상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거부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이에 우리는 회사 측의 불성실 교섭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실무교섭 전면중단'을 선언했고, 다음주까지 시한을 두고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가 없다면 총력투쟁을 엄중 경고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출퇴근 선전전과 철야농성을 전개했고 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은 18일(금)까지 진행했다. 제4차 본교섭이 열리는 다음주는 전의를 가다듬어 더욱 강력한 '전국 조합간부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합원 여러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1주일 간의 조합간부 선도투쟁으로 투쟁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주 전개할 2차 총력투쟁을 성원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협상과 투쟁의 전 과정에 항상 조합원과 함께할 것입니다.